

화협동정

● (재)일본건재시험센터와 기술협정맺어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소장 이유훈)는 지난 2월 25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재)일본건재시험센터 對馬 英輔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협회 방재시험소와 (재)일본건재시험센터는 앞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연수 및 연구활동에 관해 협력해나가게 된다.

● 소방기기 기증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억여 원 상당의 소방기기를 내무부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소방기기는 소방펌프, 공기호흡기 등 총 2백 35점으로 협회는 지난 73년부터 매년 국내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최신 소방기기를 기증해오고 있다.

● 화재예방과 안전 발간

협회는 국민학교 아동지도용 화재 예방교육교재 「화재예방과 안전」을 제작해 전국 7대도시내에 소재한 모든 국민학교에 발송했다.

「화재예방과 안전」은 국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원리에서부터 국내에 시설되어 있는 방재설비의 소개와 조작방법, 화재보험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주)럭키물류센터 안전진단

방재시험소는 (주)럭키의 물류센터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의뢰를

받아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9개지역 10개 사업장에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진단을 실시했다.

● 소방기구 제조·인증업체 초청간담회

방재시험소는 소방기구제조업체와 FILK인증 관련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방재시험소 업무소개에 이어 현안문제와 건의사항 등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동양나이론, (주)연합인슈, 대성산업, 동양미네르바 등 14개 업체가 참석했다.

● 소방점검 대행업체 지정

협회는 내무부로 부터 소방시설 용역점검대행업체 1급기관으로 지정받아 연 2회 종합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화학단지내 공장 과 발전소, 정유공장 등 특수시설의 소유주 요청시 소방점검을 하게 된다.

소방검사의 민간단체 위탁은 소방민원 행정쇄신방안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으로 자율방재능력을 갖춘 단체에 대상물의 점검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불우이웃돕기

협회는 지난 2월 26일 해병전우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장병들에게 사랑의 쌀 12가마를 전달한데 이어 3월 18일에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삼동소년촌과 도봉구 상계동에 위치한 양진동산 고아원에도 사랑의 쌀 8가마를 전달했다. ☺

소방계 동정

● 내무부 소방국장

내무부는 지난 1월 11일, 소방국장에 조남성(46)전 충북부지사를 발령했다.

조국장은 충북 단양출신으로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고시10회)하고 지역경제담당관, 충북부지사를 역임하고 국방대학원에 입교, 이번에 소방국장에 부임했다.

● 서울소방본부

119 구조대 운영 활발

서울특별시 소방본부(본부장 서성석)가 90년도 119구급대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만 6천 6백 36건에 2만 7천 1백 66명의 환자들을 구급,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9.2%(4,384명)가 늘어난 것으로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1만 3천 1백 38명(48.5%) 사고부상 4천 5백 74명(16.8%) 약물중독 9백 28명(3.4%), 가스중독 9백 26명(3.4%), 임신부 8백 45명(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본부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올해 구급차량 9대, 구급요원 54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각 소방서에는 구급차량 60대, 구급요원 3백 60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 90년 화재발생 늘어

내무부가 조사한 90년도 화재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4천 2백 4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천 5백 48명(사망 348명, 부상 1,200명)의 인명피해와 3백 41억 3천 2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나

타내 '89년도 1만2천7백4건에 비해 발생건수 1천5백45건(12.2%), 인명피해 29명(1.9%)이 증가하였으나 사망자는 99명이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1백17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원인으로는 여전히 전기화재가 5천2백49건(36.8%)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담배불 1천2백73건(10.3%), 방화 1천3백10건(9.2%), 불장난 1천61건(7.5%), 유류 8백99건(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별로는 주택 4천2백56건(29.9%), 공장 2천3백39건(16.4%), 차량 2백20건(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 봄철 화재예방기간 설정

내무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화재예방기간으로 설정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제철풍으로 연중 30% 정도의 대·소화재가 발생하는데 지난 90년도에도 봄철에 3천8백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주택에서는 가정주부 책임하에 각종 전열기구 및 화기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토록 하고 아울러 자녀들의 불장난 등을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시장·호텔 등 사업체는 시설주의 책임하에 안전시설정비, 전 사원 소방교육훈련을 실시, 자체 방재능력을 확보토록 했다. ☞

보험계 동정

● 보험차익 과세

3년 단기 저축성 보험이 91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는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과 보험계약기간 동안 불입한 보험료 총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이에 대한 과세는 기납입보험료 8백만원 이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5%의 저율분리과세 세율을, 기납입 보험료 8백만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또한 8백만원 초과는 20%의 이자소득 세율 외에도 주민세(소득세의 7.5%)가 부과된다.

● 국제사 창립 44주년 기념식

국제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이경서)는 지난 2월 1일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갖고 20년, 10년 근속직원을 표창.

● 신동아사 임원 개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는 대표이사에 박여일 부사장을 임명했다.

한편, 전임 김영동사장은 대한보증보험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안국사 창립 39주년 기념식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손경식)는 지난 1월 26일 회사 창립 39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사원 등 147명을 표창.

● 자보사 창립 29주년 기념식

한국자동차보험(주) (사장 손건래)는 지난 3월 2일 창립 29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자 및 우수직원을 표창

● 럭키사 창립 32주년 기념식

럭키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이휘영)는 지난 1월 4일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자 및 우수직원을 표창

● 안국사 손해보험전문 대학 개설

안국화재해상보험(주)는 지난 3월 5일 국내 최초로 모집인과 대리점을 위한 손해보험전문대학을 개설했다. 증견영업사원이면 누구나 추천을 받아 전문코스를 밟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으로 각각 상품전문과정, 상담전문과정, 판매전문과정 등을 두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손해보험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 재무부 보험국 인사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보험정책과장에 김종성 회계지도과장, 손해보험과장에 박상태 산업관세과장, 생명보험과장에 정의동 손해보험과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 보험감독원장 임명

정부는 3월 22일자로 임기만료되는 보험감독원장에 안공혁 전 해운항만청장을 임명했다. ☞